

영아가 주도하는



ESD 꿈틀

사회복지법인 혜성어린이집



ESD 교사공동체 운영 배경

- 영아와 유아, 유아와 초등으로의 적절한 연계가 평생학습의 기초가 됨을 강조.
- 영아는 어린학습자로 자기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 강조.
- 교사는 일상과 놀이를 통한 영아의 배움 지원자로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에
- 대한 인식 및 실행력 중요.

목차

01

ESD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02

일상에서의 태도 변화

03

교실과 가정에서의 ESD
실천

04

연령별 놀이 사례

05

교사 소감



ESD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01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

02

감각은 '도구'가 아닌 '느끼는 경험'

03

자연은 최고의 교실이자 비구조화 놀잇감의 장

04

교사의 태도 또한 ESD 실천의 일부

2. 일상에서의 태도 변화



교사는 놀이를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영유아의 선택을 기다리고 관찰하는
교사로 변화.

개입보다 기다림

교사가 개입하여 놀이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 보다, 영아들이 스스로 해결하여 놀이할때 다양한 놀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영아들이 과정을 통하여 얻는 놀이활동이 영아들을 성장 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 외 일상 장면에 대한 관찰 강화

교사들은 영아들의 놀이를 더욱 더 세밀하게 관찰하며 영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놀이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교사의 태도 변화

2. 영아의 태도 변화



영아들은 놀이 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자연을 발견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01

영아 주도의 놀이 확장



02

자연을 대하는 시선 변화



03

놀이 밖 일상에서도 자연 인식



영아의 태도 변화

3. 어린이 집에서의 ESD 실천

작은 실천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 실천을 공통으로 이어갔습니다.

휴지 대신 개인 수건 사용



점심식사 후 걸레로 바닥 닦기



위생팩 사용 줄이기



ESD 실천 가정연계 안내문 (위생팩 대신 방수 파우치 사용하기)
교. 단명 줄 48명이 있음 후. 다수인 목적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켜요 - 위생팩 줄이기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을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함께 해주세요.

평소 어린이집에서는 사용된 개인 수건이나 젖은 옷을 위생팩에 담아 가정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일 사용되는 위생팩이 많아지면 비닐 쓰레기와 양도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위생팩 줄이기 실천**을 양 연계를 떠나가 되어 진행하게 합니다.
오늘 아이들 방으로 방수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수 팩을 사용하여 아이들의 젖은 개인 수건과 옷을 방수 팩에 넣어주세요!
방수팩은 아이들 가방에 꼭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준중에 가치를 두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지향하는 세상의 ESD 교육
가정과 함께해요!

가정으로 확장하여 실천했어요!

3. 가정으로 확장된 ESD 실천

가정에서도 손 쉽게 할 수 있도록 실천가능하고, 지속가능한 ESD를 함께 했어요.

03

부모와 함께 실천하는 ESD

분리수거, 재활용품을 이용한 놀이, 우유팩 수거와 우유팩 세척



3. 가정으로 확장된 ESD 실천

우유팩 모으기에 대한 학부모 인터뷰



4. 연령별 ESD 놀이 | 사례 - 0세

0세반은 '느끼는 경험' 그 자체에 집중

03 낙엽 전시 후 감각 중심 탐색 (찍기, 담기, 바람 불어보기)



03 고구마 관찰 활동 → 악기·전화로 표현하며 자유 탐색 → 고구마 싹 틔우기 관찰



4. 연령별 ESD 놀이 사례 - 1세

자원의 순환을 놀이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04 자연물 초대 놀이

새싹의 거름이 되어줘! 자연 순환 이해



낙엽의 촉감·소리 변화 경험



다음에 새싹으로 만나~



4. 연령별 ESD 놀이 사례 - 2세

.....
놀이가 질문으로, 질문이 태도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4 곤충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

생명 존중과 관계 맺기 논의 시작

여기!! 애벌레가 있네!
누르지마! 조심해야해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 질문 발생

데려가면 안돼!
개미도 집에 가야해

선생님!! 애벌레는 논으로
보아야하~



5. 교사 소감

영아들의 놀이에서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
영아들의 놀이가 더욱 더 확장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며 놀이를 기록하고 관찰하는 것을
교사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어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어요.



영아들과 함께 일상속의 자연으로 부터
가까워지고, 일상에서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해 꾸준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세 영아들도 자연을 관찰하고 느끼는
시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아들이 자연을
대하는 감수성을 자극하며, 생명존중에 대한
경험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 교사들과의 공동체
시간 속에서 ESD에 대한 혜성만의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평소 청결을 중요시 하게 여겨, 책상을 닦거나
바닥을 닦을 때 물티슈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걸레 사용을 하고 수건 사용을
습관화 하니 영아들이 모방을 시작하며 스스로
해나아가는 시간일 정말 의미있고
건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존중하는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놀이가 교사의 아이디어나 개입없이도
충분히 더 다양하고 재미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된 시간이었어요, 저 또한 아이들의 놀이에서
진심으로 즐기며 놀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혜성
어린이집